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왼쪽)의 상승세와 선발 이의리의 부상 복귀가 1위 독주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1위 독주, 테스형·이의리 살아야 한다



초반 부침 겪은 소크라테스 5월도 '잠잠' 이의리, 오늘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소화

타이거즈의 우승 퍼즐을 위한 투-타의 중요한 조각이 맞춰질까?

KIA 타이거즈는 투-타의 밸런스를 앞세워 뜨거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21일 경기 전까지 29승 1무 16패, 0.644의 승률을 장식하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KIA는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를 상대한 지난주 '1위 수성'의 위기를 맞았다.

두산이 8연승 질주 속 뜨거운 타선을 앞세워 광주를 찾았고, NC는 호시탐탐 KIA의 자리를 노리던 2위.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의리

와 월 크로우 부상 이탈로 인한 선발 고민까지 안고 있었던 만큼 쉽지 않은 한 주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4승 1무 1패였다.

부상 복귀 후 적응의 시간을 보낸 나성범이 3개의 홈런으로 10타점을 만드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선발진 위기에서는 황동하가 5이닝 2실점의 호투로 프로 첫 승을 장식하는 등 힘을 보탤다.

큰 위기는 넘겼지만 우승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고, 투-타의 폭발력을 위한 조각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이의리와 소크라테스가 1위 독주를 위한 중요한

퍼즐이다.

지난 4월 10일 LG전에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던 이의리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긴 안목에서 시즌을 풀어가야 하는 만큼 '완벽한 복귀'가 우선 목표가 됐다. 차분하게 돌아다니도 두드리면서 준비했던 이의리가 복귀를 위한 마지막 걸음을 남겨두고 있다.

이의리는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해 실전을 소화할 예정이다.

실전 감각은 물론 몸상태까지 살펴본 뒤 이의리의 복귀가 결정되는 만큼 마운드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열구리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임기영도 이의리에 이어 23일 퓨처스리그에서 실전을 재개한다. 임기영은 4월 1일 좌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엔트

리에서 말소된 뒤 4월 19일 NC와의 퓨처스리그에서 1이닝을 소화했었다.

하지만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복귀 준비가 늦어졌고, 그 사이 KIA의 선발 고민이 가중됐으면서 '선발'에 무게를 두고 임기영의 복귀 전략이 수정됐다.

타석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성적이 관심사다.

올해로 KIA에서 3번째 시즌을 맞은 소크라테스는 앞선 두 시즌과 마찬가지로 초반 흐름이 좋지 못했다.

KBO리그에서의 첫해였던 2022년 3·4월 24경기 성적은 타율 0.227, 1홈런 9타점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새 리그에 적응을 끝낸 뒤 5월에는 4할 타자로 변신해 그라운드 '소크라테스 바람'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도 3·4월 23경기에서 2개의 홈런과 13타점을 만든 소크라테스의 타율은 0.278. 5월에는 0.318로 타율을 끌어올리고 4개의 홈런도 장식했다.

올 시즌에도 소크라테스는 3·4월 31경기에서 0.270의 타율을 기록했다. 5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한 방을 보여줬지만 꾸준함이 아쉬웠다.

소크라테스는 4월 25일 3안타 경기를 한 뒤 이후 3경기에서도 연달아 안타를 2개씩 적었다. 5월 첫날에도 말타히트를 장식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상승세를 타는 것 같았다.

5월 15일 두산전까지 16경기 연속 안타도 만들었지만 5월 15경기 타율은 0.246에 머물고 있다. 한번 감을 잡으면 거침없이 달리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개의 실책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19일 NC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소크라테스가 반전의 한 주를 보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재 "뮌헨서 내적 갈등... 더 강해지겠다"

"경기 스타일 팀과 안맞아 혼란" "반성이 중요" 새 시즌 각오 다져

"이곳 뮌헨에서는 내가 장점이라고 여긴 것들이 항상 필요하진 않거니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낸 '괴물 수비수' 김민재(27)의 말이다.

김민재는 2023-2024시즌 뮌헨에 입단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다.

직전 시즌 나폴리(이탈리아)를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끌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리에A 최우수수비수상도 받으며 '특급 수비수' 반열에 오른 그였다.

그러나 시즌 중반부터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이런저런 실책성 플레이들이 잦아졌다.

지난달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1차전(2-2 무승부)은 김민재에게 '치명타'였다.

김민재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부르게 움직이다가 결과적으로 두 골이나 내줬고, 결국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에 져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1차전 뒤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김민재가 "너무 탐욕스럽게 수비한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김민재는 21일 독일 매체 T-온라인과 인터뷰에서 공을 적극적으로 탈취하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뮌헨과 맞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털어냈다.

김민재는 "수비수로서 난 항상 신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면서 "그러나 (투헬 감독의 비판 뒤) 경기 중 망설이는 순간이 많아졌다.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때도 "감독님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김민재는 덧붙였다.

김민재는 UCL 탈락이 확정된 다음에 치른 분데스리가 경기인 볼프스부르크와 홈 경기에도 선발 출전해 보다 절제된 플레이를 펼치며 무실점을 기여했다. 다만, 막판에 발목을 접질려 교체됐고, 리그 최종전에 뛰지 못했다.

김민재는 전북 현대에서 뛰던 시절부터 늘 '최



지난 4월 30일 독일 뮌헨 일리안트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축구 경기에서 바이에른 김민재(오른쪽)가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고"였다. 선발 자리를 잃고, 결정적 실수를 범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 었을 터다.

김민재는 "전술적인 관점에서 감독님의 요구를 더 잘 이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실책 원인을 냉정하게 짚었다.

혹독했던 데뷔 시즌은 이제 끝났다.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다.

그를 뮌헨으로 데려왔으나, 한때 그에게 실망했고, 마지막에는 그를 감싸 안기도 했던 투헬 감독은 성적 부진에 결국 구단과 결별했다.

로베르트 데제르비 전 브라이트 앤드 호브 엠비언(잉글랜드) 감독, 뱅상 콤파니 번리(잉글랜드) 감독 등이 뮌헨의 차기 사령탑으로 거론된다.

김민재는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다. 다음 시즌에는 더 발전해야 한다. 한 시즌이 끝나면 선수로서 항상 많은 생각을 한다.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부족했는지, 뭘 필요한지 말이다"며 "실수와 약점을 통해 배우는 게 더 중요해졌다. 높은 수준의 경쟁을 하기 위해선 반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음 시즌엔 더 강한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희비 엇갈린 광주·전남 K리그 13R '베스트 매치'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의 13라운드 경기 가 나란히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1·2 13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와 전북현대의 대결, 전남과 서울이랜드 경기 각각 K리그1, K리그2 베스트 매치로 뽑혔다. 두 팀의 희비는 엇갈렸다.

이 경기에서 광주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던 전북에 0-3 패배를 기록했고, 전남은 적지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에 성공했다.

광주는 지난 19일 안방에서 치러진 전북과의 경기에서 63%의 점유율과 18개(유효슈팅 11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끝내 득점에 실패했다.

패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광주는 이날 골대 불운과 상대 골키퍼의 호수비에 막혀 득점 없이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전북 골키퍼 정민기와 수비수 박진섭 그리고 멀티골을 만든 전병관은 베스트 11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이랜드 안방에서 역전승을 기록한 전남드래곤즈는 K리그2 베스트 매치를 장식했다.

전남은 18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17분 이코바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7분 더진 김중민의 헤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47분 몬타노의 오른발 슈팅으로 2-1로 승부를 뒤집고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3연승에 성공한 전남은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동점골을 장식한 김중민과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승리의 주역이 된 몬타노는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성공

더블헤더 2안타 활약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더블헤더 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유지했다.

김하성은 21일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더블헤더 1차전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 2볼넷 1득점을 올렸다.

2차전에서는 7번 타자 유격수로써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가운데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에 성공했다.

이날 2경기에서 6타수 2안타를 때린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16(171타수 37안타)으로 올랐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다.

샌디에이고는 1차전에선 6-5 역전승을 거뒀고 2차전에선 0-3으로 패했다.

1차전 3회 말에 그친 김하성은 6회엔 좌중간 안타를 때렸으나 다음 타자의 병살타로 2루에서 잡혔다. 2-5로 끌려가는 8회초, 김하성은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을 골라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샌디에이고는 안타와 볼넷으로 1사 만루를 만든 뒤 제이코 크로넨워스의 2타점 적시타와 매니 마차도의 2타점 2루타로 6-5로 역전했다.

김하성은 9회 볼넷을 하나 더 골라냈으나 추가 득점은 없었다.

김하성은 2회말 수비에서는 시즌 7번째 실책을 저어냈다. 평범한 땅볼이 김하성의 글러브를 맞고 튀어 올라 뒤로 빠진 것이다. 다행히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김하성은 9회말 2루 베이스와 중견수 사이 애매한 위치로 떨어지는 타구를 뒤로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를 선보였다. 마무리 투수 로버트 수아레스도 김하성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고 이후 2타점을 끌어내 승리를 지켰다.

김하성은 이어진 2차전에서 좌완 선발 크리스 세일을 상대로 2회초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4회에는 중견수 방향으로 안타를 생산했다.

이후 김하성은 2루를 훑쳐 시즌 10호 도루에 성공했다. 2022시즌(12도루), 2023시즌(38도루)에 이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행진이다. /연합뉴스